



나는 라브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장윤석¹⁾

이제 발령을 받은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동료들이 힘들게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알았을까요? 제가 행정업무 때문에 심리적 공황 상태에 종종 빠졌다는 것어요. 아이들은 저를 힘들게 하면서도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차고 넘치는 생기랄까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이라고 말한 윌리엄 워즈워드의 말처럼 아이들은 제게 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브리에 찾아오는 것은 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쉽기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쉴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브리는 쉼퍼 선생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가 주어 진다는 것이 참 기대되었습니다. 2주간을 머무르면서 스트레스로 뜨거워졌던 머리는 점점 정상을 되 찾아갔고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라브리에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라브리에 와서 그 원인이 제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브리의 모토는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Honest question and Honest answer)입니다. 정직한 질문이 주어질 때 정직한 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정직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라브리의 모토가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Honest question and Honest answer)”인지 라브리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쉼퍼 선생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쉼퍼 선생님은 기도 중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쉼퍼 선생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영적 원리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 애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

1) 현직 교사, 2015년 여름학기 한국라브리 방문자

나뉘고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저를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쉼페 선생님의 사상을 정교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쉼페 선생님의 사상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관통하는 진실(penetrating truth)”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상은 매우 방대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로 엮는 관통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터디를 통해 파악했고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를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제를 관통하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 세세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용의 줄기를 잡아가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토론하고 질문하며 공부할 때 알고 있었던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쉼페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2주간의 시간은 쉼페 선생님의 사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뭉뚱했던 지성의 날이 새롭게 날카로워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풀리지 않았던 난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의 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라브리에서 다양한 분들을 뵈게 된 것은 고여 있던 호수에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했고 아픔을 얻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교장으로 유명하신 서길원 선생님께서 “자기 확신이 강한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브리에서 한 분을 뵈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쉼페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이 옳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얇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해치려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을 보면서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

의 시작은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상대방을 공격(attack)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의 어원적 의미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참되게 비판적 사고를 해야겠습니다. 지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라브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라브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프란시스 웨퍼라는 영적 거인의 사상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상의 문제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라브리를 모방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웨퍼 박사의 깊은 사상체계 없이 라브리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란시스 웨퍼의 사상체계가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제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일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첫째도 발음, 둘째도 발음, 셋째로 발음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영원히 겸손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 각주에서)

어거스틴의 이 말처럼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삶에서의 중요한 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재를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